

수습하기도 바쁜데... 영국, 브렉시트 '내홍'

지도력 실종 논란

캐머런 "EU 협상은 후임 몫"
정치권 후임 총리 경쟁 돌입
내각 집단 사임...책임론 공방



캐머런 총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은 당초 지구촌에 혼란이 닥쳤으나 이를 수습할 영국 정치권이 먼저 타격을 받고 내홍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탈퇴 절차의 시행이나 보류, 재검토 등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영국의 지도력이 실종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의 도미노 이탈과 국제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EU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까지 브렉시트 후속대책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선언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을 10월 선출되는 후임에게 떠넘겼다.

브렉시트 투표 과정에서 지지와 반대로 갈라졌던 보수당은 그 기간에 후임 총리 선출을 놓고 내분을 이어가게 됐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24일 캐머런 총리는 사임을 선언하면서 브렉시트 이행 절차는 차기 총리에게 넘겼다.

그는 "탈퇴 협상은 새 총리 아래 시작돼야 한다"며 EU 이사회에 정식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하는 시기는 자신이 아닌 후임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당 원로들은 27일 총리 선출을 위



25일(현지시간) 런던의 시계탑 '빅 벤' 인근 처칠 전 영국 총리 동상 뒤편에서 한 시위자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경선 일정 논의를 시작하고, 캐머런 총리 지지파에서는 존슨 전 시장이 맞설 다른 후보를 물색하는 등 후임 총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을 펼치던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당내 반란에 직면했다.

힐러리 벤 예비내각 외무장관이 "코빈이 대표로 있는 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며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나서자 코빈 대표는 26일 즉각 해임을 발표했다.

이후 예비내각의 동료 의원과 칼 터너 예비내각 검찰총장 등 11명이 한꺼번에 자진 사임했다.

앞서 노동당의 2명의 의원은 국민투표

에서 코빈 대표가 노동당 지지층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대표 불신임안을 제기했다.

코빈 대표는 내각 의원들의 집단 사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임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당 지도자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주적인 선거에 나서야 하고 나도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둘러싸고 니콜라 스톤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을 향해 "지도력 공백사태가 왔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반대를 외치는 스톤전 수반은 "영국민을 대신해 완전히 절망적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67 후한 말 무인 동탁

동탁(董卓, ?~192)의 자는 중영이며 양주 농서군 임군현 출신이다. 후한 말의 군인 겸 정치가로 황건의 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정권을 잡아 폭정을 일삼았다.

그는 젊어서부터 서량의 강족(羌族)과 친분을 맺었다. 서량지방에서 이민족으로부터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잘 수행해 정장군에 임명되고 합항후에 봉해졌으며, 병주목으로 승진했다. 영제가 죽고 소제가 즉위하였다. 대장군 하진은 소제의 외삼촌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궁중은 심상시 등 환관의 세력이 워낙 강해 환관을 멸하지 않고는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진은 사예교위 원소와 환관을 주멸할 계획을 세우고 갑속에 주둔하고 있는 동탁의 부대를 수도 낙양으로 불러들였다. 변방의 장군인 동탁이 중앙 정치에 등장하는 역사적 계

기점이 되었다. 동탁 등이 참여하였다. 동군태수 교모는 동탁의 죄상을 설명한 후 "땀을 흘리며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으니, 의병을 일으켜 나라의 환란을 풀어 주기를 희망한다"며 동탁을 토벌할 것을 호소해 제후들이 이에 응한 것이다.

그는 낙양을 버리고 자신의 근거지 서량에 가까운 장안으로 천도를 단행했다. 태위 황은, 사도 양표의 반대를 물리쳤다. 수십만 낙양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니 짓밟히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낙양을 불태워 사망 200리 이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황제와 대신들의 묘까지 도굴하였다. 원소의 일족도 모조리 죽었다.

그러나 연방군은 각기 동상이몽에 빠져 제대로 단합이 되지 않아 동탁 타도에 실패했다. 조조와 원소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장안으로 복귀한 동탁의 전횡이 더욱 심해져 일족은 어린아이를 조차 관직을 차지하였다. 삼국에서 태사로 승진해 각종 대우가 황태자급

소제 내치고 헌제 세운 뒤 갖은 폭정

기로 되었다.

참모 포신은 원소에게 동탁의 낙양 주둔을 강력 반대했다. "그는 강성한 병력을 거느리고 반역하려는 마음이 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장차 그에게 제압당할 것이다"라며 동탁 제거를 주장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그는 소제를 폐하고 동생 유희를 옹립하였다. 후한 마지막 황제 헌제다. 소제 유변은 폐립되어 흉농왕이 되었다가 결국 살해되었다. 생모인 하태후를 잔 채 궁전 출입이 허용되는 등 은갖 특전이 부여되었다. 그는 성격이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로 사람들을 벌주었으며 아주 작은 원한도 잊지 않고 갚았다. 공녀나 공주까지 간음하고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

그의 악정에 반발해 반동탁 동맹이 맺어졌다. 원소 한복 유석 왕망 원소 등으로 격상되었다. 동생 동민은 좌장군과 후후로 승진했고 장조가 동맹은 시종이 되었다. 장안 주변 미천에 성을 쌓고 30년치 식량을 비축했다. "일이 잘되면 천하를 다스리고 잘 안되면 이곳을 지키며 여생을 보내겠다"며 자신만만해 했다.

회폐개혁을 실시했으나 실패해 물가가 폭등해 민심이 더욱 흉흉해졌다. 사도 왕은, 상서복야 사순서는 그의 후위대장 여포를 설득해 동탁 살해 음모를 꾸몄다. 여포는 그의 계집종과 정을 통한 일이 탄로날까 늘 두려워했다. 192년 4월 동탁이 궁궐에 들어가는데 기도와 위속 등의 습격을 받았다. 급히 여포를 찾았는데 여포는 "조서를 받들어 역적 동탁을 치노라"고 외치며 동탁을 죽였다. 시체는 거리에 내버려지고 일족은 멸족되었다.

삼국지 동탁전에는 "법령은 가혹했고 행방을 어지러이 적용했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무고했으므로 죽은 이가 1000명이나 되었다"며 그의 폭정을 비판하고 있다. 후한서의 저자 범엽도 "원래 호랑이 같은 성깔로 대도(大盜)라 하겠다"고 혹평하였다. 동탁의 만행은 후한 황조의 생명을 사실상 끊어 놓았고 조조와 원소가 정국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EU 정상들, 캐머런 빼고 비공식 회의

찬밥 신세 된 영국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28~29일(현지시간) 모여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사임하겠다고 선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역시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찬밥 신세가 될 전망이다.

캐머런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다른 회원국 정상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이 26일 전했다. 지난 2월 EU 정상회의에서는 브렉시트를 지지하기 위해 캐머런 총리의 요구를 대폭 수용, 영국의 특별 지위를 인정한 영-EU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안에 합의

했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는 이 새로운 합의안을 가지고도 영국이 EU에 남아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레임덕에 빠진 지도자로서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캐머런 총리로서는 28일 저녁 만찬에서 국민투표 이후의 영국 상황과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둘째 날인 29일에는 캐머런 총리를 제외한 27개국 정상들이 영국과의 '이혼 절차'를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가 따로 열린다.

2년 동안 분리 절차를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캐머런 총리가 이를 이행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EU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주민 겨냥 혐오 범죄... "집에 돌아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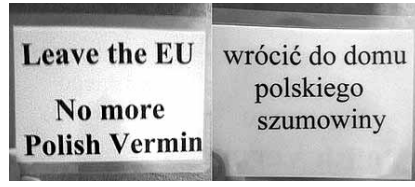
인종 차별 범죄 잇따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된 국민투표 이후 영국에서 이주민을 겨냥한 인종 차별적 혐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 서부 해머스미스에 있는 폴란드사회문화협회(POSK) 건물 입구에 인종 차별주의자 소행으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건물 외벽과 창문 곳곳에 "집에 돌아가라"고 쓰인 낙서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POSK는 지금은 지워진 낙서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또 캄브리지셔에서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지난 24일 "EU를 떠나라,



"EU를 떠나라, 폴란드 해충은 필요 없다"고 적힌 카드.

폴란드 해충은 필요 없다"고 영어와 폴란드어로 적힌 카드가 대량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러한 이민자 혐오 행동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에 사는 EU 국민도 본국으로 추방당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 (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 전 지역 신속 책임 중개 /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 - 6211 - 4585 (동구 지산동434-2, 1층)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대로변 7층중 4층 상가317㎡ 감정가 7억8천 최저가 4억3천6백(56%)투자적합
- ★ 전라남도 나주시 오랑동 가이농공단지내 공장대지 3,587㎡ 건물 1,097㎡ 감정가 9억 최저가 9억 신축병동 참고 사무실
- ★ 담양 무정면 봉안리 공장대지 6,552㎡ 건물 2,473㎡ 감정가 13억9천3백 최저가 7억8천만원
- ★ 광주 광산구 신가동병원 대지 2,756㎡ 건물 3,606㎡ 감정가 46억9천 최저가 46억9천만원
- ★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11,546㎡ 건물 5,733㎡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21억9천
- ★ 함평 해보면 용산리 공장대지 3,306㎡ 건물 1,977㎡ 감정가 26억1천1백 최저가 14억6천2백
- ★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가덕리 공장대지 3,661㎡ 건물 1,644㎡ 감정가 17억3천6백 최저가 5억6천9백(33%) 13번국도변
- ★ 광주 북구 연제동3층 상가대지 279㎡ 건물513㎡ 감정가 5억1천8백 최저가 3억6천2백 아파트단지앞
-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1억3천2백 최저가 21억3천2백

수익형 추천 물건

- ★ 광주 북구 유등동 대로변6층 상가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매매 55억원
- ★ 광주 북구 유등 무인텔 대지1,010㎡ 건물1,610㎡ 객실20개 월 5천만원 매매 20억원
- ★ 광주서구화정동 6층모텔 유등대지416㎡ 건물2,000㎡ 터미널뒤면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을 보증금 2억5천 월 1천4백 매매 27억(용13억포함)
- ★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298㎡ 건물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억5천
- ★ 광주 수원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 8백만원 매매가 17억
- ★ 목포시 연산동 롯데슈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광주 산수동 대로변 4층건물 대지 596㎡ 건물 948㎡ 주택 86㎡포함 매매 12억5천만원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상가 대지 675㎡ 남구청영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 24억원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661㎡ 현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판매장 상가건축적합 매매 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원함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펜션카페 대지15,668㎡ 건물900㎡ 수익성미려가치우수 매매가상담후결정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48억(요양병원허가취득)
- ★ 전남 장성군 장성읍 행복한국마을 대지 666㎡ 강변조망 무상보증금 3천만원 용자 4천만원 매매 1억3천7백만원 조정가능 프리미엄없음
- ★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영인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 947㎡ 지하, 1층상가 사무실, 2~4층 오피스텔 매매 13억5천
- ★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용 3억) 투자적합 직영추천
- ★ 광주 북구 태평동 광주북초교인근 토지 11,052㎡ 도로점 투자가치 최적매매12억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상담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10 - 6838 - 6008